

## 〈서해무릉기〉의 인물 관계와 주제의식\*

최지녀\*\*

- I. 서론
- II. 소년과 도적의 대비적 형상화
- III. 초월적 조력자와 간접적 조력자
- IV. 정절 수호 의식과 애정의 성취
- V. 결론

### 〈국문초록〉

〈서해무릉기〉는 19세기에 창작 및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문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남녀가 근친 혼인, 도적에 의한 신부 탈취, 부모와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애정 소설의 면모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절의 수호와 애정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서해무릉기〉의 인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첫째, 〈서해무릉기〉의 ‘아내 찾기’는 한 여성을 사이에 둔 두 남성, 곧 유연과 도적의 대결 구도에 기반하고 있다. 유연과 도적은 대조적인 기질과 외양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며 유연이 상대적인 열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대결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유연의 승리로 귀결된다. 둘째, 유연과 최월혜가 재회하고 탈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은 다양한 조력자들의 개입을 통해 해결된다. 조력자는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조력자와 적대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력의 기능을 행사하는 간접적인 조력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셋째, 작품의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강의전담교수

주제의식이기도 한 정절은 세 사람의 주요 등장인물을 통해 구현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애정이 성취된다.

핵심어: 서해무릉기(西海武陵記), 애정소설, 아내 찾기, 도적, 조력자, 정절, 앵혈(鶯血), 애정 성취

## 1. 서론

<서해무릉기>는 19세기에 창작되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남녀가 다양한 문제 상황 곧 근친 혼인, 도적에 의한 신부 탈취, 부모와의 갈등 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애정소설의 면모를 지닌다. 초기 연구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 및 ‘혼사 장애’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내 찾기’의 과정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었다.<sup>1)</sup> 이후 작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연구로서 이본과 작중 인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sup>2)</sup> 그밖에 작품의 특징적인 요소로서 군도(群盜) 혹은 남성 인물의 성격에 주목한 연구도 제출되었다.<sup>3)</sup> 작품의 연원에 대해서도 애정소설로서의 성격, 지하국대적퇴치담(地下國大賊退治談) 및 군도담(群盜談)과의 관련성, 혼사장애 모티프 수용 등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고찰된 바 있다.<sup>4)</sup>

1) 김명순, 『서해무릉기』,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정윤수, 『<서해무릉기>의 구성과 의미』, 『어문연구』 9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김명순, 『<서해무릉기>의 혼사장애 내용과 그 의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 집문당, 1998.

2) 송하준, 『<서해무릉기> 이본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8, 우리어문학회, 2017(a); 송하준, 『<서해무릉기>의 인물 형상화와 작가의식』, 『한국학연구』 61,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7(b).

3) 배정희, 『<서해무릉기>의 신고찰』, 『문학과언어』 26, 문학과언어학회, 2004; 서혜은,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의 해도 공간 연구』,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이후남, 『고전소설의 남성 정절 서사 연구』, 『고전과 해석』 32, 고전문학한문학회, 2020.

4)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시기, 향유층, 주제의식 등을 통합적으로 고찰한다면 <서해무릉기>의 연원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김재용, 『고소설

이와 같이 <서해무릉기>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편폭에 비하면 비교적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핵심 서사에 해당하는 ‘아내 찾기’와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異論)이 존재한다. 예컨대 주인공인 유연의 아내를 납치한 도적은 ‘자신의 위엄을 유지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는 인물’,<sup>5)</sup> ‘유연과 최월혜 사이의 애정 갈등을 유발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악인’,<sup>6)</sup> ‘비뿔어진 연정에 집착하는 음험한 야심가’<sup>7)</sup> 등으로 상이하게 평가되며 심지어 동일한 논의에서 모순적인 평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적의 캐릭터가 다면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나 이러한 다면성의 정체와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 각각의 성격뿐 아니라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절의 수호와 애정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서해무릉기>의 인물 관계를 분석하여 인물과 사건의 다양한 속성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고 그것이 전체 작품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해무릉기>에 대한 기존 연구의 모순점들을 가능한 한 보완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조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무릉기>의 이본은 선행연구에서 5종을 소개하고 있으며,<sup>8)</sup> 여기에 충남대학교 경산문고 소장의 <청암녹><sup>9)</sup>을 더하면 현재 6종의 이본이 확

필사의 전통과 영남 선비집안 여성의 문학생활: 성주군 정감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사 연구』 28, 한국문학사연구소, 2018, 319면에 의하면 <서해무릉기>는 성주 이씨 양반 김성촌에서 <쌍열옥소삼봉기>, <유씨삼대록>, <육인몽>, <제호연록> 등과 함께 필사·향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에서 감지되는 장편가문소설의 요소를 해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5) 배정희, 앞의 글, 205면.
- 6) 서혜은, 앞의 글, 112면.
- 7) 송하준, 앞의 글, 2017(b), 197면.
- 8) 송하준, 앞의 글, 2017(a)에서 이화여대본, 아단문고본, 김광순본, 고려대본, 성균관대본의 존재를 보고하고 있다. 경북대본도 있으나 낙절이다.
- 9) <청암녹>은 송주희, 『<청암녹>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 그 경계를 살펴보면 <서해무릉기>의 이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청암녹>을 유일본으로 오인하여 <청암녹>과 <서해무릉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광순본 <서해무릉기>에 최월혜가 “나는 전주 북촌에 스는 청암선성에 즈손이니 성은 최시오”(14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보이는데 <청암녹>이라는 표제는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청암녹>에서는 최월혜의 부친이 아닌 유연의

인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선본(善本)에 속하는 김광순본을 저본으로 하여 본론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sup>10)</sup>

## II. 소년과 도적의 대비적 형상화

<서해무릉기>의 서사는 여주인공 최월혜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두 남성의 대결 구도를 주축으로 하여 전개된다. 그 흐름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의 명공(名公) 유현중의 자제 유연은 영흥에 사는 최한림의 딸 최월혜와 혼례를 치른 첫날밤에 도적의 수괴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도적의 침입을 받고 신부를 잃은 유연은 부모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면서 10년을 기한으로 최월혜를 납치해 간 무리를 찾고자 한다. 도적은 최월혜의 용모와 덕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내로 삼기 위해 그를 자신의 근거지인 해도(海島), 곧 서해무릉으로 데려갔으나 억지로 혼인을 치르지 않고 역시 10년을 기한으로 최월혜의 회심(回心)을 기다린다. 작품은 유연이 도적과 직간접적으로 대결하면서 3년 만에 아내를 찾아와 재결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작품은 한 여성의 마음을 얻어 완전한 혼인에 이르기를 바라는 두 남성의 대결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연과 도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되는 인물이다. 유연과 최월혜가 혼인할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각각 16세와 15세, 그리고 도적은 18세였다. 유연과 도적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으나<sup>11)</sup> 두 인물의 개성은 꽤 다르게 그려진다. 먼저 유연은 명문가의 자제로서 뛰어난 문재(文才)를 지닌 아름다운 소년으로 묘사된다. 유연은 두보를 능가하는 시재(詩才)를 지닌 인물로 갓 16세가 된 후 과거에서 장원급제한다. 이때 그의 모습은 ‘반악(潘岳)과

부친을 청암 유박사로 지칭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10) 김광순 편, 『한국고소설전집』 8, 경인문화사, 1993에 수록된 「서해무릉기 권지단」을 저본으로 하고 원문을 인용할 경우 면수는 괄호 속에 간단히 표기하기로 한다. 원문의 판독과 현대 역은 백운용 역주, 『조한림전·서해무릉기』, 박이정, 2015를 함께 참고하였다.

11) 도적은 작품에서 ‘장군’ 또는 ‘소년’으로 지칭된다.

진평(陳平)의 관옥 같은 품체'(3면)에 비견되고, '쇄락한 안색과 수려한 거동'(3면)이 겨울 자가 없어 모든 이가 사위로 삼고자 할 정도라고 하였다. 종적을 감춘 최월혜를 찾아 전국을 유랑할 때 동네 아낙에게 고깔과 바랑을 얻어 여승으로 변장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도 특별히 아름다운 용모와 '약질'(弱質)로<sup>12)</sup> 표현된 신체적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촌이니 이로디 이러한 김흔 곳에 산중 사람이 드러오니 이외이며 저러한 절식 여승은 더욱 처음이로다 승이 더할 소승은 금산사 두시 암즈의 잇는 여승 이러니 명산희슈를 구경하러 이에 이르렀시나 지명을 몰호니 청컨디 가랏치소서 세이니 미모를 흠선차탄호여(22면)

(2) 익일 오정의 계선니 밧그로조츠 드러와 고왈 장진 밧게 여승 일이니 와서 양식을 청호디 미모 슈려흠과 옥안영풍이 본 바 처음이라 청슈단아호미 우리 가씨와 방불호더이다(23면)

여승의 차림을 한 유연을 본 사람들은 정체를 의심하기는커녕 그 미모에 감탄한다. (1)은 최월혜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유연이 우연히 도적의 본거지인 서해무릉을 발견하고 섬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여승으로 분장하고 나타난 유연을 본 사람들은 '절색'이라며 그를 칭찬한다. (2)는 최월혜의 시비 계선이 유연을 보고 난생처음 보는 미모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 장면이다. 유연은 여승으로 분장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서 강인하고 완력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미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도적은 체구가 크고 늙름하며 위압적인 외양으로 묘사된다.

문득 장군니 도라움을 노복이 고히거날 소저는 놀나 처소로 도라가고 심은 문의 나와 장진 밧게 나와 안즈 거동을 완상흠의 추종이 요요함에 호리 전후로 응위호야 위에 장여호 소연니 준마를 높히 타고 나는 다시 드러오니 뇌락장디호 풍신과 표일호 기상이 웅장엄슈호며 양목을 흘려 좌우를 슬피디 안치 일광을 가 리오노지라 심이 흥혀 자가를 아라불가 공구호더니 장군니 이윽히 보다가 문왈

12) "뉴싱이 약질이라 호나"(33면)

네 저러흔 손승으로 이갓치 곱흔 곳의 무어슬 유의하야 발섭힘을 감시하나뇨 소린 뇌성병녀 갖고 위풍늑늑하니 심이 즈연 황구하여 나죽이 함장 스투왈 소승은 산간 여승이라 불도를 위하여 처스공을 드리며 산상으로 두루 도라 다닐 다람이 오 엇지 무어슬 유의하야 발섭하오릿가 소연니 미소왈 네 상을 보니 반다시 연고 잇난 승이러니와 소연 여승이 본디 희중 무인체라 외간 줍이니 드러오지 못하니 모름이 빨리 도라가 앓가운 신명을 상히치 말지어다 언필의 혼 소리 호령의 모든 흐리 영을 조츠 심의 등을 미러 멀니 니치거날 심이 황황분분하야 천방지방 다라나(26~27면)

인용은 유연이 서해무릉에 가서 최월해와 남몰래 재회한 후 도적과 마주치게 되는 대목이다. 유연은 집을 비웠던 도적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놀라 몸을 피한 후 대문 밖에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었는데, 이때 도적이 추종들의 호위를 받으며 말을 타고 나타난다. 도적의 모습은 ‘장려(壯麗)한 위(威儀)’라는 말로 표현되는바 풍채와 기상이 빼어나고 웅장하며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도적은 외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총명함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햇빛을 가릴 정도로 빛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도적의 눈빛은 그가 지닌 지혜와 판단력을 상징한다. 하나같이 여승의 미모에 탄복한 다른 이들과는 달리 도적은 유연의 상(相)을 보고 연고가 있다고 말하며 혜안(慧眼)을 드러낸다. 유연 역시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도적의 눈빛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낀다.<sup>13)</sup> 도적은 유연이 떠난 후에도 모친과 노복들에게 여승의 행색이 수상하므로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는데 이를 통해 도적이 남다른 안목을 지닌 신중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대목은 도적의 외양과 기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 사람의 행색과 심리를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여장을 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유연과 여러 부하를 거느리고 말 위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도적의 모습은 물리적 높낮이의 차이를 통해 누가 상황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당당하고 태연한 도적과 두려움을 느끼며 위축된 유연은 확연히 대비된다. 도적이 이곳을 떠나

13) “저 소연의 안광이 즈가의 심수를 비취난 듯하니 놀남고 황황하야 성명을 보전하야 나오미 다형이라 호고 밧비 마을노 숨어 츠후는 감히 그곳으로 가지 못하교”(28면)

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미소를 띤 채 여유로운 협박을 하는 것과 달리 유연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렵고 불안하여 급히 달아난다. 유연은 첫날밤에 아내를 빼앗길 때 ‘간담이 떨어지고 정신이 아득하여 혼비백산한 듯 이윽히 정신을 차리지 못’(10면)했던 때처럼 생명을 보전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연은 학문과 덕성을 고루 갖추어, 이미 7~8세에 언어도량과 문장필법이 탁월하고 효성이 지극했던 인물이다. 객관적인 힘과 품모에 있어 유연과 도적은 정반대의 형상으로 그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적이 내면의 자질이 불량한 인물은 아니다. 도적은 폭력적이고 무도한 전형적인 악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를 준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성이 소저를 잇거리 침석의 나아가 축을 쓰고져 홀 촌에 홀연 밧그로조츠 일성 고향이 이러나며 더문을 띄치고 한 췌 적당이 혼가를 에위싸고 호령이 천지 진동헌더니 범갓흔 군졸과 산악갓흔 역사 전후로조츠 장한 위에 첫잠의 더경분 황홀여 성명을 앓겨 살기를 도모할시 한낫 더장이 청나포에랄 입고 증총관을 쓰고 도홍씨를 쫓고 삼척 보금을 잡고 좌우를 지휘하여 위풍이 늑늑하고 호령이 뇌성갓하며 군졸을 명하야 바로 신방으로 드리고 좌우로 분부 왈 인명은 헤치 말고 신부를 뵈셔 너라 하는 소리 (...) (9~10면)

인용은 도적의 무리가 유연과 최월혜의 신방에 난입하여 신부를 탈취해 가는 장면으로 이 작품에서 도적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다. 그의 행위는 부도덕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러한 행동과 어울리지 않게 위엄 있고 늑름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그는 첫날밤의 신부를 훔치는 악행을 저질렀으나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일 없이 신부만을 데리고 사라졌다. ‘인명은 헤치 말고 신부를 모셔 내라’는 도적의 말은 그의 인간됨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곧 도적이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 흉적(凶賊)은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완전히 망각한 자도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도적이 최월혜를 대하는 태도 또한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 그는 최월혜가 서해무릉에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혼인을 강요하지 않

았으며,<sup>14)</sup> 최월혜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멀리서 시비를 통해 말을 전할 정도로 내외의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인다.<sup>15)</sup> 이와 같이 예의범절을 갖춘 모습은 도적이 그 모친을 대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도적이 모친과 최월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간간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도적은 정중한 언어와 차분한 태도로 모친을 대한다. 별도로 언급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언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자지간의 점잖은 대화와 모친을 공경하는 아들의 태도는 도적이 평면적인 악인이 아니라 상도(常道)를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유연이 최월혜를 찾기 위하여 서해무릉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계절이 변해야 시간이 흐르는 줄 알 만큼 태평하게 지내며,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하다고 한 것 또한 도적의 통치자로서의 어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다.<sup>16)</sup>

이와 같이 도적의 긍정적인 면모가 부각되거나 때로는 남주인공인 유연에 비해 더 우월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 대목이 작품 곳곳에 존재한다.<sup>17)</sup> 도적의 외모와 언어에 대한 작중의 묘사는 상당 부분이 긍정적이다. 후일담에 해당하는 작품의 말미에서도 도적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징치(懲治)되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을 아내로 삼아 혼인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유연이 조정에 상소하여 도적을 잡으려 하였으나 끝내 그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도적 역시 나름의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서 도적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유연 또한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도 새로운 혼처를 찾으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가출하여 떠돌았던바 완벽하게 이상적인 인물로 그

14) “츠시 장군니 최시로 더부러 성예코져 쓰지 급흐나 아직 소저의 스정을 두려 뵈박지 못흐 더니 임의 슈삼 연니라”(29면)

15) “장군이 또한 권흐나 갖가이 오지 아니하고 언어지설이 무례치 아니흐며 식비로 전어허여 왈 낭즈는 천만외에 이런 광경을 당하여 놀랍고 비감흐미야 업스리요마난 종춘 이후로 가항부모를 디흐리니 너모 슬허 마시고 위신보호호소서”(13면)

16) “지명이 서희무릉이라 꽃홀 보아 봄을 알고 단풍이 드러 낙엽이 되어야 가을인 줄 아나니라 하고 다도아 양식을 쥘는 즈 만호니 인심이 순후함을 가히 알깃스며 바람이 무거워 피지 못홀러라”(23면)

17) 배정희, 앞의 글, 201면에서 “서술자는 주인공보다 적대자를 훨씬 더 강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적대자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캐릭터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두 남성은 각각 상이한 매력과 약점을 지닌 삼각관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 특히 결말을 본다면 작품이 최종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긍정하고 있는 인물은 도적이 아닌 유연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유연의 유약한 면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어 있긴 하나 그는 생사 조차 불명한 최월혜를 찾기 위해 갖은 고초와 굴욕을 겪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강한 의지와 신의를 가진 인물이다. 도적과의 대결에서 직접적인 우위를 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결국 최월혜를 되찾아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두 사람의 대결의 최종적인 승자가 유연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중국에 도적은 최월혜의 죽음을 믿지 않고 여승이 나타난 후 최월혜가 사라진 것을 계속 의심했으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최월혜의 자결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는 도적이 완벽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월혜가 죽은 것으로 알고 오랫동안 슬퍼하는 도적과 주변 인물들의 모습은 그 진지함의 정도만큼이나 희화화를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월혜의 부친인 최공이 도적들을 가리켜 ‘궁흉대적’(窮凶大賊)이라고 한 것처럼 첫날밤을 보내려고 하는 신부를 납치한 도적의 죄는 통상적인 윤리 감각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도적이 다시 한번 여성을 납치하여 혼인함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사실은 그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것임을 말해준다.<sup>18)</sup> 이런 점에서 유연과 도적의 대결은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애정에 투신한 열정과 도덕적 우위로 인해 유연의 승리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 승리는 주인공인 유연이 얼마간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인물로, 적대자인

---

18) 최월혜가 죽었다고 여긴 도적은 재색을 겸비한 것으로 이름난 해남의 우소저를 납치해 간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도적이 유복녀로 태어난 우소저가 모친과 이별하지 않도록 모녀를 함께 데려간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도적이 만행을 일삼는 가운데도 여전히 예의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약간의 여운을 남긴다. 다음의 대목을 참고할 수 있다: “장군니 우소저의 지용을 흠모하고 다려다가 인연을 맺고져 흠이오 오시를 함께 다려가는 뜻은 모여 찌나지 말게 혼는 뜻이라”(52면)

19) 이와 관련하여 송하준, 앞의 글, 2017(a), 205~201면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사랑에 기초한 혼인을 긍정하되, 그것을 전통적 예교로 뒷받침하고 추인함으로써 현실 질서 속에 흡수하고 통합한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도적이 악인으로서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정당성을 한층 강하게 부여받는 효과를 낳았다.

### III. 초월적 조력자와 간접적 조력자

앞서 남주인공 유연이 아내를 찾기 위한 대결에서 유약한 미소년으로 그려진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유연이 육체적·정신적 열세에 놓인 상태에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도덕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현실적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조력자들이다. 이 조력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초월적 조력자와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적대적 성격의 조력자로 나눌 수 있는바 우선 초월적 성격의 조력자에 대해 살펴보자.

유연은 아내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했지만 전국을 떠돈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했으며, 아내가 있는 곳을 찾은 후에도 바위 동굴에 숨어 지내며 아내를 찾을 방도를 찾지 못했다. 이때 유연을 도운 것은 강원도 금산사의 부처이다. 금산사의 부처는 본래의 모습 혹은 승려의 모습을 하고 꿈에 나타나 두 사람의 재회를 돕는다.

(1) 나는 금산스의 부처러니 네 가부의 지성을 감동호야 부부 양인을 도움이 있나니 명일 오시에 한 여승이 밧게 와 이슬 거시니 이 곳 뉴성이라 서로 기봉호미 이스리라(23면)

(2) 나는 금산스 부처로서 너의 가부의 정성을 감동호야 양인을 도우미니 지금 장원 밧게 뉴성이 왓스니 밧비 나가 기약을 정호여 보라 하거날 최시 경아하여 씨치니 침상일몽이라 심중의 해오디 붓처의 몽교 헛되지 아님을 아랏스니 엇지 불신하리요(31면)

위의 인용은 서해무릉에 감금된 최월혜의 꿈에 금산사 부처가 나타난 대목이다. (1)은 최월혜가 여승으로 분장한 유연과 재회하기 전에 꾸 꿈이고, (2)는 재회 후 유연이 최월혜를 탈출시킬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의 꿈

이다. 부처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처한 두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부처는 두 사람의 재회의 모든 국면에 개입하여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리거나 취해야 할 행동을 지시한다. 부처는 최월혜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로 한결같이 ‘가부(家夫)의 지성(至誠)’, ‘가부의 정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지략이나 완력으로는 도적에 대항하여 아내를 구출하기 어려운 유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 한편, 아내를 되찾고자 하는 남편의 열망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둑의 처소에서 나오는 데 어렵사리 성공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난관에 부딪힌다. 섬 밖으로 나갈 방도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유연과 최월혜는 동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도적의 추적이 뜸해진 후에 해안으로 나가 탈출하고자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런데 고깃배를 모는 노인이 그들을 태워 육지로 나가게 해준다. 이 노인은 먼바다를 지나가다가 유연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배를 돌려와 ‘내 매양 해상에서 머물며 세월을 보내나니 어찌 이런 사람들의 간청을 저버리리오’(37면)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이들을 육지로 실어다 준다. 노인은 별다른 맥락 없이 등장하여 해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등장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록 현실적인 존재로 설정되었지만 서사적 기능은 신이한 존재의 그것과 유사하다. 가로막힌 물 앞에서 등장하여 다리를 놓아주는 짐승 때나 배를 타고 와서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해주는 선녀 혹은 선동과 그 기능이 거의 같은 셈이다. 요컨대 유연과 최월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초월적 조력자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애초에 두 사람의 결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sup>20)</sup> ‘아내 찾기’라는 작품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sup>21)</sup>

20) 대운산 신령이 최월혜의 꿈에 유연을 데리고 나타나 육례(六禮)를 갖추어 맞이할 것을 기별한다.

21) 이윤선, 『애정소설의 조력자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2~23면에서는 <서해무릉기>의 조력자로 금산사 미륵불 및 주인공들의 부친인 유공과 최공을 들고 있다. 두 사람의 부친을 조력자로 든 이유는 허락 없이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유연과 최월혜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유공이 마음을 돌려 두 사람을 승인한 행위를 일종의 조력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조력자의 존재를 작품 전체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점에서 상기 논문과 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조력자의 범주와 조력의 효과에 대

이렇게 금산사 부처로 대표되는 초월적 존재가 직접적 조력자라면 표면적으로는 조력자로 보이지 않는 간접적 조력자도 존재한다. 간접적 조력자의 성격은 복합적이다. 직접적 조력자가 유연과 최월혜의 뜻에 부응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존재라면 간접적 조력자는 도적 주변의 인물로서 정절을 지키고 재회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뜻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서해무릉의 인물로서 특히 최월혜에게 온정을 베풀어 의도치 않은 조력을 제공하는 인물들을 여기서는 ‘적대적 조력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먼저 도적의 모친인 정부인을 살펴보자. 정부인은 최월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행화촌에 살다가 13세에 도적의 무리에 잡혀 온 인물이다. 도적의 모친은 최소자와 아들의 혼인을 바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월혜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도 탈출과 유연과의 재회를 지지하고 돕는 인물은 아니다. 심지어 정부인은 아들과 함께 최월혜를 며느리로 점찍어 납치하기 위해 오래 공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sup>22)</sup> 그러나 납치되어 온 최월혜를 위로하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 최월혜가 목숨을 부지하도록 지지한다는 점에서 적대적인 인물로만 생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당장의 혼인을 원치 않는 최월혜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린다는 점에서는 최월혜가 정절을 지키는 데 큰 조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은근지정과 위중 사랑함이 친모갓흐나 오직 최시 마음에는 허다지설이 모다 더럽고 욕됨이 측양업스지 더욱 늦기며 이결왈 (…) 복원 부인은 희환지덕으로 침을 돌려보니스 부모에 안면을 다시 보게 하시오면 부인에 산은희덕을 후상에 갑스오리다 만일 불허호실진디 일일이라도 머무러 유성지심이 업스오니 츠라리 한번 죽어 말근 원혼니 나라 고향 고가를 츠자가 양친을 뵈옵고져 원하니아다 (15~16면)

인용은 최월혜가 정부인에게 자신을 돌려보내 줄 것을 호소하는 대목인데 부인의 애정에 대한 최월혜의 착잡한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부인의 사

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22) “다만 슬허의 일조를 두었스나 연기 심판에 미부를 툇치 못하여 스방으로 요조숙여를 광구 홀 제 소저에 율터화용과 현미숙덕을 익회 듯고 흠모호은지 오리나 아직 미성호기로 장성홀을 기다리더니 문듯 드름에 성혼결연한다 홀으로 비록 예를 가초와스나 합근치 아여 속히 다려움이니 이거시 모다 천정신수운익이라 조곰도 한탄상심치 말라”(15면)

량은 ‘친모’에 비길만한 것이지만 결국 부인의 뜻에 따르는 것은 친부모와 이별하고 정절을 잃는 일을 의미하기에 최월혜는 부인의 다정한 개유(開諭)가 욱되게 느껴진다. 그러나 결국 최월혜는 목숨을 보존하라는 부인의 말을 따르고 ‘부인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일명(一命)이 구차히’(16면) 살았다고 말하는바 부인의 심리적 지지를 통해 해도에서의 삶을 견디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부인은 최월혜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고자 최월혜를 친딸처럼 보살핀다. 최월혜가 죽었을 때는 거짓 죽음을 사실로 여기고 아들을 타하기도 하고<sup>23)</sup> 아들 및 시비 계선과 함께 닳새 동안 성복(成服)을 하고 제문을 지어 애통해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삼상(三喪)이 지나도록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최월혜를 그리워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묘사된다.

일언초의 도라와 삼상을 맞도록 초석흠을 이기지 못하야 시시 영변의 나아가 최시 영혼을 부르지지며 극원극통이 비길 더 엮고 친여라도 더으지 못할러라 계선도 또한 노주지정뿐 아니라 일신처소의 주야 동거하며 미즌 다정하미 골육동기 갖더니 일야지간의 스별이 정영하니 엇지 참연치 아니리오 인루방방하야 금치 못하더라(36~37면)

인용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해도에서의 시비 계선 또한 간접적 조력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계선은 최월혜와 유연의 재회, 그리고 최월혜의 탈출을 돕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최월혜를 위로하고 그의 견제에 의심 없이 복종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탈출에 간접적인 조력을 한다. 계선은 여승으로 분장한 유연이 찾아왔을 때 그 정체를 몰랐으나 유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최월혜의 기분을 풀어줄 요량으로 그와의 만남을 권하여 두 사람의 재회를 성사시킨다. 한편 최월혜는 유연과 만나 탈출하기로 한 날 밤에 계선에게 담장 밖의 경치를 구경하러 나가자고 한 다음 강가로 나가 자신이 혼례일이 닳치기 전에 자결할 수도 있음을 은근히 암시하는데, 나중에 계선은 이 말을 도적에게 전함으로써 최월혜의 죽음에 대한 도적의 의심을 씻는 역할을 한다.<sup>24)</sup>

23) “너는 부절업시 탐식하다가 최시에 미려혜질을 만경창과의 무주고혼니 되게 하니”(35면)

탈출의 과정에서 최월혜는 계선이 자신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문지기의 열쇠를 그다음 날 아침에 돌려주도록 명한 다음 그 열쇠를 삼경(三更)에 몰래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신발과 비단 치마를 벗어 투강한 것처럼 꾸민 후 유연과 함께 동굴로 달아난다. 이때 계선이 달구경을 하자는 최월혜의 말에 의혹을 품고 따르지 않았거나, 열쇠를 아침까지 지니고 있으라는 최월혜의 말을 어기고 문지기에게 열쇠를 돌려주었다라면 탈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월혜의 입장에서는 계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만 계선은 끝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본래 시비 계선의 역할은 최월혜를 보조하면서도 감시하는 것이었을 테지만 두 사람은 노주(奴主)로서 돈독했을 뿐 아니라 동기와 같이 다정하게 지냈다. 계선 또한 13세의 나이로 충북 청원에서 도적에게 붙잡혀 온 비운의 인물이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고향을 떠나 붙잡혀 온 동질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인과 계선은 최월혜에 대한 동정(同情)을 가지고 그의 연명과 탈출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모르고 최월혜에 대한 호의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력자로서의 의미를 끝까지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납치와 유괴라는 경험을 이미 겪은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최월혜의 정절 수호와 애정 성취에 일조했다는 것은 이 조력이 심층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연대에 기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sup>25)</sup> 따라서 이 조력을 그 정서적인 면에 치중해서 명명한다면 일종의 ‘동정적’ 조력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작품의 주요한 반동 인물인 도적조차도 최월혜의 정절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점에서 정절 수호의 조력자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한다. 유연과 최월혜는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켰지만 그 재회가 실현된 것은 조력자의 도움에 의해서이다. 이와 같이 초월적인

24) “장군니 처음은 의심허더니 강가에 최시 슈혀와 나상이 노혀심을 보고 그 뜻이 청고강지흠을 알디 비로소 뉘웃고 크게 슬허하며 선을 불너 츠사를 무르니 선니 최시 야간 문답사를 일일이 고함던 부인은 더욱 인연착약함을 금지 못하고 장군은 실심 묵묵무언니러라”(35면)

25) 서혜은, 앞의 글, 133~134면에서 정부인과 계선, 그리고 최월혜가 서해무릉에 납치와 같은 범죄 행위가 조선후기의 부유(浮游), 해랑(浮浪) 집단에 의해 자행되었으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존재는 물론 적대적인 위치의 인물까지도 이들의 재회와 탈출에 간접적인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인물 관계의 특징이다.

#### IV. 정절 수호 의식과 애정의 성취

<서해무릉기>를 관통하는 명백한 주제는 정절 혹은 열(烈)이다. 첫날밤 동침 직전에 불의의 이별을 한 부부가 재회할 때까지 어떻게 정절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이 작품의 서사를 견인하는 주된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해무릉기>는 이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단편의 소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앵혈 모티프를 도입하고 있다.<sup>26)</sup>

싱이 정신니 황홀하여 이에 동좌하여 옥슈를 잡아 나삼을 거드귀고 빅설갓  
호 옥비에 잉점이 원연호거날 싱이 경아왈 비상 잉혈은 중원 규슈에게 있는 비  
라 엇지 소저에게 기이한 잉점이 잇나뇨 소저 붓그러움을 이기지 못호야 묵묵부  
답호니 싱이 지삼 무름에 소저 부득이 디왈 육연 전의 왕비게 가실 제 옥화단에  
서 이거슬 낭즈희 쓰며 일일 소아들게 점호시고 첩에게까지 미쳤나이다 게오 슈  
연을 답호 후 슈순을 다드니 싱이 가지록 황홀호야 혼연 답소왈 지금 소저의 흥  
점이 분명하나 츠야를 지나면 업서질진디 엇지려나뇨(9면)

위의 인용은 첫날밤 동침 전에 유연이 최월혜의 손목에서 앵혈을 발견하고 놀라며 그 연유를 묻는 장면이다. 유연이 앵혈을 찍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풍습이라고 말하고, 동침을 하면 앵점이 없어질 것이라며 신부를 놀리는 대목은 최월혜의 성적 순결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서사 전개에서 앵혈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앵혈을 확인하는 장면을 사후에 삽입

26) 앵혈은 상층의 윤리의식을 반영하는 장편가문소설에서 주로 등장하는 소재이다. 중단편에 속하는 작품 가운데는 <방한림전>, <홍백화전> 등 일부의 작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바 <서해무릉기>에 앵혈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계보 혹은 유전에 주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방한림전>과 <홍백화전>에 나타난 앵혈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지너,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참조.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앵혈을 드러내는 장면을 설정하고 이것을 거듭 확인하는 구성을 취했다는 것은 정절의 수호가 이 작품에서 주의 깊게 강조되는 주제라는 점을 드러낸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최월혜는 도적에게 납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마 안에서 치마를 찢어 목을 매고 자결을 시도하는데 이를 발견한 시녀들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된다. 훼손의 위기에 처하여 목숨을 끊고자 하는 것, 혹은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저지되는 것, 그리고 계속하여 자결을 시도하나 주변의 감시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열녀에 대한 전형화된 서술과 유사하다. 이어 사흘에 한 끼를 먹으며 근근이 연명하고,<sup>27)</sup> 3년 동안 옷을 바꾸어 입지 않고 머리를 다듬지 않았으며,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문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sup>28)</sup> 또한 열녀의 전형성에 부합한다.<sup>29)</sup> 최월혜가 부인에게 거짓으로 남긴 유서에서는 ‘충신은 불사이군이오 열녀는 불경이부라 하오니 첩이 어찌 이 지경을 섬기리오 장차 수절치 못할지라 창과연수에 탁신하와’(34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열녀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명백히 정절 수호의 서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신만고 끝에 귀환한 최월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절에 대한 시험이다. 최월혜가 도적과 혼인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독자들과 달리 작품 속의 인물들은 실절(失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유언과 최월혜가 재회한 이후 최월혜의 앵혈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의 여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다.

(1) 뉴싱곳 아니면 최랄 좃지 못허리러라 부모를 기망하고 삭발위승하야 단심을 구지 먹어 스희팔방의 포박종적이 임의 원을 일우어 흥점이 두렷하고 단스를 이럿스나(38면)

27) “최시 도한 장녀를 보야 결하려 마음을 구지 먹고 부인에 지극 권뉴함을 저바리지 못하여 삼순구식을 여구능더흐나 겨요 연명만 허더라”(16면)

28) “낭조 이에 이룬지 슈삼연니로디 문의 나지 아니트니 금일 이에 이름은 괴득다 흐리로다”(26면)

29)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13~40면 참조.



(2) 부인은 그 여아의 실절치 아님을 무르니 소저 옥안을 숙여 양구 후 디왈 소여 비상 잉혈이 업스오면 엇지 뉴성의 의심치 아니리오 이럼으로 뉴성도 합근 치 아녀 잉점이 완연하오이다 하니 공과 부인니 디경호와 다시옵 물은디 소저 진실함을 발명하여 왈 뉴량이 소저의 뜻을 맞지 아니면 부모와 구고계서 엇지 소여의 정절을 알니오 학스 부부 니염의 디히하야 여아의 옥비를 싸혀보니 흥점이 더욱 빛남을 보고 환히하여 뉴성에 금석갓흔 마음과 여아의 칭고호 절기 츄 등 업손지라 기특히 너기고 일변 신기하야(41면)

(3) 또한 부인이 두웃기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소저 삼연 적중의 명절을 전 호고 무사이 도라움을 설파하며 비상 잉혈을 좌중의 자랑하니 일시의 좌우 모다 구경하며 놀라고 기특히 녀이드라(49면)

(1)은 서해무릉을 탈출하여 서너 달 후 전라도에 도착한 두 사람에게 대한 작가의 논평으로, 최월혜에게 앵혈이 남아 있어 실절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논평을 통해 정절이 작가가 의도한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유연이 최월혜와 재회하기 전 부처가 현몽하여 ‘네 아내는 아직 죽지 아니하고 빙옥같은 절행을 보전’(19면)하였다고 알려 준 것도 같은 성격의 대목이다. (2)는 3년여 만에 돌아온 딸이 실절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모친과 최월혜의 대화이다. 모친이 실절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고 부부가 딸의 팔목을 건어 올려 앵혈을 확인하는 대목에서 정절이 이 작품의 주요한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거니와 최월혜는 자신이 정절을 지켰음을 남편 유연이 이미 확인했고, 그 사실을 부모와 시부모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3)은 최씨 가문에서 딸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여 연회를 베풀 때 손목의 앵혈을 좌중에 자랑하여 모두 구경하게 하는 다소 아연한 장면이다. 그러나 정절의 수호가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결연의 조건이 되는 작품 내의 상황에서는 딸의 정절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감동하는 장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연출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위의 (2)를 통해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여주인공인 최월혜가 정절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유연과 재회한 후에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여성인 최월혜에게만 정절의

덕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 유연 또한 정절을 지키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최월혜가 사라진 후 슬한 혼인 권유를 뿌리치고 최월혜를 찾아 나서며, 두 사람의 순결을 입증하기 위해 재회한 후에도 잠자리를 하지 않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기질과 뜻이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 상통한다는 점은 작품의 초반에서부터 암시된다.

(4) 박스 틱부함이 비상호야 중곡갈담과 요조속여탈 구하여 경망이 허치 아니  
터라 공즈 또한 상적호 비위탈 어더 일성을 종고낙지에 안낙을 누리고져 호야  
관져 호구를 구하려 뜻지 고산 갖호니(4면)

(5) 만일 저 소져 아니면 구슬뎌과 봉황 벼개라도 부부에 꿈을 일으키 못호리  
니 반다시 무쳐호리로다(6면)

(4)에서 유연의 부친인 홍문박사 유공은 애초 며느리로 『시경』의 「갈담」(葛覃)과 「관雎」(關雎)에서 노래하는 현부(賢婦)를 얻고자 하였다 고 했는데 이는 최월혜의 존재를 암시하는 설정이다. 유연 또한 자신과 뜻이 맞는 아내를 만나기를 바라는데 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정절을 지킨다는 설정과 연결된다. (5)는 유연이 최월혜를 처음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최월혜가 아니고는 혼인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대목이다. 이 역시 유연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월혜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정절을 지키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외에도 유연과 최월혜 두 사람의 정절을 동시에 부각하는 언술이 작품에 종종 보인다. (1)에서 효(孝)마저 저버리고 아내를 찾아 나선 유연의 정절을 단심(丹心)으로, 끝내 정절을 지킨 최월혜의 정절을 홍점(紅點)으로 지칭하며 두 사람의 뜻이 상합(相合)함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나, (2)에서 ‘유생의 금석 같은 마음’, ‘여아의 청고한 절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절이 여성인 최월혜만이 아니라 부부가 뜻을 함께하여 지킨 것으로 제시한 대목 등이 그러하다.<sup>30)</sup>

작품 말미의 논평에서는 ‘유생의 열부(烈夫)와 최씨의 열절이 기이함으로 일권서를 지어 후세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노라’(53면)라고 하여 유연의

30) 이후남, 앞의 글, 56~59면에서 유연의 정절을 남성의 정절 유형 가운데 ‘순애(純愛)’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행동을 열(烈)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그를 열부로 칭하고 있는바 이 작품의 작자는 최월혜와 함께 유연을 정절을 지킨 인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연은 다른 여성과 혼인할 것을 권하는 부모의 말<sup>31)</sup>을 듣지 않고 최소저를 찾아 집을 떠나는데, 이러한 그의 모습은 고소설에 종종 등장하는바 늑혼을 피하여 정혼자를 찾아 나서는 여성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꼽을 수 있는 도적 또한 정절이라는 주제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다시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도적은 결연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최월혜의 훼손을 시도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sup>32)</sup> 그리고 혼인을 하고자 했던 최월혜의 죽을 이후에야 새로운 혼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도적 또한 정부(貞夫)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애초에 도적은 두 사람이 합방하기 직전에 최월혜를 탈취해 오게 되는데 이 또한 비록 혼인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긴 하나 정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담은 행위로 이해된다.<sup>33)</sup> 특히 도적의 최월혜에 대한 태도만을 두고 보자면 최월혜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자 했다고 할 만한 대목이 여럿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적은 최월혜를 서둘러 아내로 맞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최월혜의 회심(回心)을 기다린다.

(6) 이적에 최시 탈취한 장군니 소저를 도적함에 옥모션티 만고의 절식이라 디열쾌락호여 급회 턱일 성예코저 하나 오직 최시에 마음이 송죽갓고 목숨을 초개갓치 너기니 만일 위력으로 핏박호다가 옥이 썬어지고 쏫치 썬러지는 환을 불거시니 다만 세월을 지축호야 그 회심호기를 기다리며 이후란 세상의 절디가인 니 잇다호여도 유의치 아니하더라(20~21면)

- 
- 31) “너는 유가의 만금씨동이니 뜻을 들어 현문귀가의 요조숙여를 다시 취하라”(11면); “너는 너모 파넘치 말고 네 몸을 보호하라 작야지면은 천만의외어니와 본디 최시와 인연니 업습이니 너 너를 위호여 숙여가인을 구호리라”(11면); “너는 유가의 만금씨보라 무익상회호야 심신을 상히지 말라”(12면); “심스를 돌려 다시 숙여를 간택함이 올커날”(17면) 이는 차례로 장인, 부친, 모친, 부친의 말로 양가의 부모가 거듭 다른 이와 혼인할 것을 권유했음을 알 수 있다.
- 32)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 택일을 하고 혼인을 하고자 최월혜를 강압하지만 이것은 최월혜의 탈출로 인해 좌절된다.
- 33) 도적의 모친은 예를 갖추었으나 합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월혜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15면)

(7) 정부인니 헤오디 그 소저의 마음이 철석갓흐니 회심치 아닐 거시오 도한 위력으로 꺾박지 못흐리라 호고 아즈다려 개취흠을 권흠에 장군니 더왈 모친은 몰음이 천흐 세상에 동서팔방을 두로 도라도 저러한 미식을 다시 구흐기 어렵스 오니 소즈는 다른 계교 업습고 오직 십연 한정호여 저의 연기 초오면 필경은 마음을 두루힐 듯 모친은 소저를 갖가이 다리시고 은근 익홀흐스 즈익히시기를 더 두터이 하시며 빅 가지로 기유하시면 즈연 세월이 오리고 비하니 푸러지면 나중 이 잇스리이다 정시 울히 너겨 또한 세언으로 듯을 바드며 진정으로 사랑흐미 친녀에 지너더라(21면)

물론 도적이 최월혜의 정절을 지키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다. (6)에서 도적이 최월혜를 강압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혹시 억지로 성례할 경우 최월혜가 자결할 것을 우려해서이다. 또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적이 최월혜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미색에 있다. 그러나 모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을 최월혜가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도적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서는 정혼자라고 할 수 있는 최월혜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으며 정절을 지키도록 간접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최월혜를 데려온 이후에는 어떤 절대가인이 있다는 말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데서 도적 또한 최월혜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적이 최월혜가 죽었다고 여기고는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울울불낙’(235면)하는 장면에서도 최월혜에 대한 도적의 진심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최월혜와 도적의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적은 자신의 행동 체계 안에서 정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요컨대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세 사람, 곧 유연과 최월혜, 도적 세 사람은 모두 정절의 이념을 체화하여 이를 주제로 구현하는 인물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유연과 최월혜가 본래의 배우자를 되찾은 반면 도적이 또 다른 여성을 아내로 삼게 된 것은 차이라고 하겠으나 세 사람의 애정 성취는 모두 정절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한다.<sup>34)</sup> 결국 <서해무릉

34) 송하준, 앞의 글, 2017(b), 192면에서 유연이 아내를 되찾은 것에 대해 “유연은 특출난 재주가 없다. 그런데도 그가 짝을 되찾은 건 민담에서 탐색 주체가 성공하는 것과 비슷하다. 능

기>의 서사는 주요 등장인물 세 사람이 상호적으로 정절의 의무를 수행하고 그 보상으로 애정을 획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무릉기>의 서사구조는 한 여성을 사이에 둔 두 남성, 유연과 도적의 대결 구도에 기반하고 있다. 유연과 도적은 대조적인 기질과 외양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며 유연이 상대적인 열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대결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유연의 승리로 귀결된다. 둘째, 유연과 최월혜가 재회하고 탈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은 다양한 조력자들의 개입을 통해 해결된다. 조력자는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조력자와 적대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력의 기능을 행사하는 간접적인 조력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조력은 특히 동정에 기반하고 있다. 셋째, 작품의 주제의식이기도 한 정절은 작품의 주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을 통해 구현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애정이 성취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인물 관계와 작품의 주제의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연관을 지니며 동시에 작품 전체에서 본다면 ‘아내 찾기’ 전후의 서사와 연결되어 있다. 도적이 주인공과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윤리 감각을 유지함으로써 주인공 부부의 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나 유연의 문사(文士)로서의 나약한 면모가 적대적 인물의 역할을 대폭 감소시키고 주변 인물들 대부분이 조력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 그것이다. <서해무릉기>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이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고 기존의 분산된 논의의 통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력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나 선량한 품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유연이 아내를 자력으로 구출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논의의 출발점에는 동의하나, 조력자의 역할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의 ‘성공’을 도덕적 정당성과 정절에 대한 보상의 체계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광순 편, 『한국고소설전집』 8, 경인문화사, 1993.  
백운용 역주, 『조한림전·서해무릉기』, 박이정, 2015.

### 2. 논문

- 강애희, 「서해무릉기 연구」, 『이화어문논집』 5, 이화어문학회, 1982, 59~76면.  
김명순, 「서해무릉기」,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87~904면.  
\_\_\_\_\_, 「〈서해무릉기〉의 혼사장에 내용과 그 의미」, 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 집문당, 1998, 527~548면.  
김재웅, 「고소설 필사의 전통과 영남 선비집안 여성의 문학생활: 성주군 정갑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8,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313~349면.  
배정희, 「〈서해무릉기〉의 신고찰」, 『문학과언어』 26, 문학과언어학회, 2004, 199~222면.  
서혜은,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의 해도 공간 연구」,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105~142면.  
송주희, 「〈청암녹〉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171~195면.  
송하준, 「〈서해무릉기〉 이본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8, 우리어문학회, 2017, 145~172면.  
\_\_\_\_\_, 「〈서해무릉기〉의 인물 형상화와 작가의식」, 『한국학연구』 61,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7, 187~214면.  
이윤선, 「애정소설의 조력자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88면.  
이후남, 「고전소설의 남성 정절 서사 연구」, 『고전과해석』 32, 고전문학한문학회, 2020, 41~77면.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13~40면.  
정윤수, 「〈서해무릉기〉의 구성과 의미」, 『어문연구』 9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134~153면.  
최지녀,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29~57면.

The Relationship of Characters and Thematic Consciousness  
in *Seobaemureunggi* 西海武陵記

Choi Jinyeo

*Seobaemureunggi* 西海武陵記, created in the 19th century around, is a Korean romantic novel that depicts the process of overcoming various obstacles such as close marriage, kidnapping of bride and conflict with parents. This narrative focuses on Finding Wife, so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e of it to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characters and events in a unified perspective. Then their function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examination, first of all, Finding Wife is based on the confrontation of two men with a woman in between. Two men, husband and bandit are described as having a contrasting temperament and appearance. Though the husband seems to be in relative inferiority, it eventually results in a victory of him with moral justification. Second, the difficulties that husband and wife have to solve in order to reunite and escape is resolv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ssistants. There two types of assistants: direct assistant with transcendent ability and indirect assistant with characteristic of antagonist. Last, chastit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work, is embodied through the three main characters of the work, and affection is achieved as a reward for this.

Keywords : *Seobaemureunggi* 西海武陵記, romantic novel, kidnapping of bride, bandit, assistant, chastity, enghyeol 鶯血, achievement of affection

접수일자: 2024. 9. 30.  
심사기간: 2024. 10. 1.~2024. 11. 10.  
게재결정: 2024. 11. 10.

